



# 생각을 바꿨다 공이 살아났다

KIA 타이거즈 윤영철이 생각의 전환으로 직구 자신감을 찾고, 그림 변화로 체인지업 매서움을 더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KIA 좌완 윤영철, 직구 자신감 붙으며 3연승 등 시즌 7승 정교함에 자신감 더해져 상승세 “좋은 것만 보고 즐기겠다”



생각을 바꾼 KIA 타이거즈 윤영철의 연승행진이 계속된다. KIA 윤영철은 지난 21일 한화 이글스와의 홈 경기에서 6이닝 3실점(비자책점)의 피칭으로 시즌 7승에 성공했다. 6월 9일 두산전을 시작으로 15일 KT전에 이은 3연승이다. 상승세를 탄 윤영철은 앞선 경기에서는 7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면서 올 시즌 개인 한 경기 최다 탈삼진도 장식했다. 정교함과 매서움이 더해진 윤영철의 변화, “생각하는 게 달라졌다”가 그의 설명이다.

윤영철은 “뭔가 직구를 던졌을 때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다. 던지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 피하게 되고, 변화구 던지게 되고 그렇게 피하면서 하다가 카운트 불리할 때 들어가니까 맞고 그랬던 것 같다”며 “의리형이 말을 많이 해줬다. 2년 차 때 똑같이 그랬던 것 같는데 어쩔 수 없다. 어찌 됐든 자신 있게 들어가야 된다”고 말했다. “주축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포수한테 물어보면 직구가 그렇게 달라진 것도 없다고 하는데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다.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서 잘 됐다”고 말했다.

포수 김태군도 윤영철이 마운드에서 던지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줬다. 윤영철은 “경기 때 그날그날 공을 어떻게 가져갈지 잘 해주시는 것 같다. 두 경기 연속했는데 결과가 좋은 것도 있고, 결과가 좋으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기분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자신 있게 들어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찬호의 애정 어린 조언도 있었다. 타자 입장에서는 윤영철의 체인지업이 살아야 까다로운 승부가 된다는 게 박찬호의 이야기였다. 윤영철은 앞선 한화전에서 불규칙바운드로 인한 박민익의 실책 뒤 실점을 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결정적인 순간 대타 김강민이 타석에 들어섰고, 윤영철은 베테랑을 5구째 헛스윙 삼진으로 잡고 리드를 지켰다. 이때 방망이를 헛뜯게 한 공이 체인지업이었다. 윤영철은 “시즌 초반에 공이 계속 빠지니까 잔호 형이 이야기를 해줬다. 체인지업이 스트라이크에

서 불로 가야 하는데, 볼에서 볼로 가버리니까 타자들의 방망이가 아예 안 나왔다. 그림도 계속 바뀌면서 노력했다. 지난 경기부터 정재훈 코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림을 바꿔서 가운데 보고 세계 던지고 있는데 그게 잘 되고 있다”며 “타자들이 생각할 게 많아지니까 많이 안 던지더라도 최대한 그 공이 있다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ABS(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도 올 시즌 윤영철에게는 낯선 변수였다. 제구가 좋은 선수였던 만큼 ABS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윤영철은 초반 세 시스템에 고전을 했다. 윤영철은 “좌우가 좁아진 게 있다. 역구가 스트라이크 되는 것보다 잘 던지는 게 불이 되는 게 더 많았다. 작년에 스트라이크 잡아주던 게 불이 된 것도 많다. ABS에 대해 초반에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 불평은 없다. 다 공정하다. 어찌 됐든 적응을 해야 된다”며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그러려니 하고 던지고 있다. 지금 잘되고 있는 것 같다. 생각 없이 마운드에서 사인 보고 계속 던지는 것이다. 생각 없이

재미있게 던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윤영철은 남은 시즌 좋은 것만 보면서 마운드에서 즐기겠다는 각오다. 윤영철은 “항상 코치님이 말해주시는데 내가 못 던져도 야수들이 잘 쳐줘서 승을 딸 수 있다. 내가 잘 던졌는데도 야수들이 점수를 못 내서 승을 못 딸 수도 있는 것이다. 승은 어려운 것 같다. 운도 좋아야 한다. 승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투수들 평가하는 큰 부분이다”며 “초반에 평균자책점도 안 좋고 그랬는데 4승을 했다. 그때 의리형이 ‘안 좋은 것은 보지 말고 좋은 것만 보고 가라. 지금 4승이면, 4승 투수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다. 좋은 것만 보고 해야 결과가 좋을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잘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의리형 수술 잘 마쳤다고 들었는데 의리형이 항상 많이 도와주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을 먼저 가 본 형이라 배우는 것도 많다. 빨리 와서 같이 야구 하면서 던지고 싶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의 가브리엘(11번)이 지난 25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와의 K리그1 19라운드 경기에서 드리블을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 광주FC ‘연승 뒤 연패’ ...수원FC에 0-1 ‘덜미’

### 중국서 풀려난 손준호 홈데뷔전 K리그2 전남, 수원과 1-1 비겨

광주FC가 연승 뒤 연패를 기록했다. 광주가 지난 25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와의 K리그1 19라운드 경기에서 0-1패를 기록했다. 앞선 대전전 1-2 역전패에 이은 연패. 점유율에서는 광주가 62%로 앞섰지만 수원FC의 집중력이 좋았다. 이날 두 팀은 나란히 5개의 슈팅을 날렸고 수원FC는 5개의 유효슈팅, 광주는 2개의 유효슈팅을 기록했다. 광주 수문장 김경민이 좋은 수비로 골대를 지켰지만 후반 30분 나온 정승원의 슈팅은 막지 못했다. 수원FC 안데르손이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페널티 박스에 있던 김주엽과 강상윤에 이어

정승원에게 공이 연결됐다. 정승원이 페널티 아크에서 오른발 슈팅을 선보였고 매섭게 날아간 공이 광주 허울을 스쳐 골대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광주가 부지런히 골사냥에 나섰다. 후반 34분 최경록의 헤더가 빗맞으면서 골대를 벗어났고, 후반 37분 이상기가 올려준 크로스는 문전에 있던 엄지성의 머리에 닿지 못했다. 경기 종료 후 나온 가브리엘의 헤더는 상대 골키퍼 안준수가 잡아내면서 경기는 0-1패로 끝났다. 중국 공안에 구금됐다가 풀려난 뒤 수원FC를 통해 K리그로 복귀한 수원FC 손준호는 이날 홈데뷔전을 치렀다. 손준호는 후반 10분 지동원을 대신해 그라운드에서 오르면서 처음 홈팬들을 만났다. K리그2의 전남드래곤즈는 같은날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수원삼성과의 홈경기에서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선제골은 전남의 차지였다. 전반 31분 전남이 울

산HD에서 임대영입한 ‘유망주’ 김동욱이 시즌 첫 골을 장식했다. 코너킥 상황에서 임찬율이 올린 크로스가 문전 경합 과정에서 뒤로 흘렀다.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동욱이 침착하게 원발로 공을 감아차면서 골망을 흔들었다. 하지만 전남이 후반 추가 시간 골을 허용하면서 김동욱이 결승골을 장식하지는 못했다. 후반 48분 수원 물리치의 슈팅을 골키퍼 최봉진이 막아냈지만 오른쪽으로 공이 흘렀고, 공을 잡은 김주현이 오른발로 골대를 가르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남은 시간 추가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두 팀은 승점 1점씩 나눠 가졌다. 아쉽게 승리를 더하지 못했지만 전남은 이날 무승부로 8경기 연속 무패를 이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한국 축구, 가시밭길이나 꽃길이나

### 오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예선 조 추첨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을 통해 11회 연속 대회 본선행을 꿈꾸는 한국 축구가 아시아 3차 예선에서 가시밭길을 피할 수 있을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대진을 결정하는 조 추첨이 한국시간으로 27일 오후 4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아시아축구연맹(AFC) 본부에서 진행된다. 9월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 기간부터 시작하는 3차 예선에 나설 18개국은 6개국씩 3개 조로 나뉘어 홈 앤드 어웨이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조별리그를 치른다. 각 조 상위 2개국씩 총 6개국이 월드컵 본선 직행 티켓을 차지한다. 5, 6위까지 떨어지면 탈락한다. 3, 4위에 자리한 6개국은 3개국씩 2개 조로 나뉘어 다시 경쟁해야 한다. 1위 팀들이 2장의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가져가고 2위 팀들은 서로 맞붙어 대륙 간 플레이오프 진출 팀을 결정한다. 2차 예선에서 5승 1무를 거둔 우리나라는 이달 FIFA 랭킹(22위)에서 아시아 3위권을 지켜 1번 포트에 포함되는데 성공했다. AFC 소속국 가운데 FIFA 랭킹이 가장 높은 일본(17위), 이란(21위)과 1번 포트에 들어가면서 3차 예선에서 이들 팀과는 만나지 않게 됐다. 다만 2번 포트를 비롯한 다른 포트에도 까다로운 팀들이 많아 방심해서는 안 된다. 당장 FIFA 랭킹 23위로 우리나라와 마지막까지 1번 포트를 두고 경쟁한 호주, 2023 AFC 아시아컵 우승팀 카타르가 2번 포트다. 3번 포트에도 최근 축구계에 전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시아컵 준결승전에서 한국에 0-2 완패의 아픔을 안긴 요르단도 버티고 있다. ‘지한파’ 감독이 포진한 팀도 부담스럽다. 4번 포트에서는 한국 축구를 잘 아는 파울루 벤투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이끄는 아랍에미리트(UAE)가 쟁쟁한 상대다.



손흥민

6번 포트에도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적대적인 여건의 평양 원정 경기가 특히 부담스러운 북한이 포함돼 있다. 여러 약연으로 얽힌 이런 팀들과 같은 조에 묶인다면 월드컵 본선으로 가는 마지막 길이 ‘험로’가 된다.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를 통해 물색 중인 새 사령탑은 선임되자마자 이 3차 예선 무대에서 한국 축구를 월드컵으로 이끄는 임무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 3차 예선을 뚫으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을 달성한다. 한국은 1986년 멕시코 대회부터 2022년 카타르 대회까지 본선 무대를 밟으며 세계에서 6번째로 10회 연속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1954년 스위스 대회를 합치면 통산 11번째 본선에 진출했다. 한국에 앞서 10회 이상 연속 월드컵에 출전한 국가는 브라질(22회), 독일(18회), 이탈리아(14회), 아르헨티나(13회), 스페인(12회) 5개국뿐이다. /연합뉴스